

Le Corbusier의 Towards a New Architecture에 대한 분석과 그의 建築觀에 對한 연구

李 相 海
建築學科

〈要 著〉

本考는 近代建築에서 가장 큰 影響을 준 것중의 하나인 Le Corbusier의 建築에 關한 첫번째 저서에 대한 紹介와 이의 分析에 대한 치도이다.

「Towards a New Architecture」에 나타난 그의 建築觀은 多樣하고 鼓舞的이다.

그는 이 저서를 통하여 近代建築에 관한 어떠한 저서보다도 가장 많은 影響을 주었고 또한 이것을 說得力있게 얘기하고 있다.

本考는 그의 건축관을 새로운 관점에서 分析 評價해보려는 의도에서 접근해 본 것이다.

The Analysis and Architectural Theory on Le Corbusier's "Towards a New Architecture"

Lee Sang Hai
Dept. of Architecture

〈Abstract〉

In this essay, I introduced and analyzed Le Corbusier's first book on architecture, which was to prove to b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he idea of 'Towards a new Architecture' is various and ambiguous. But in any case, it was precisely the rediscovery of the old in the new, this justification of the revolutionary by the familiar, that ensured the book its enormous readership, and an influence, inevitably superficial, beyond that of any other architectural work published in this century to date.

기 위함이다.

I. 머 릿 말

本考는 建築家 Le Corbusier⁽¹⁾의 建築에 관한 첫 번째 著述인 「Vers une Architecture」(英譯⁽²⁾)은 「Towards a New Architecture」에 나타난 Le Corbusier의 建築觀을 點하고 이를 檢討 分析함으로서 그의 建築思想과 近代建築에의 寄與를 解明하

또한 19세기 建築界의 가장 큰 關心事는 새로운 建築에 대한 다양한 試圖였고 이러한 近代建築⁽³⁾에 대한 생각은 많이 變化되었고 때로는 混沌되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Le Corbusier의 「Towards a New Architecture」의 發刊으로 어느정도 가능하여졌고 建代建築에의 하나의 epoch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책에 대한 충분

(1) 本名은 Charles Edouard Jeanneret인.

1887年 10月 6日 Swiss의 La-Chaux-de-Fonds에서 태어나서 1965年 8月 27日 南佛 Cap-Martin에서 海水浴中 死亡함.

(2) 여기서는 Frederick Etchells譯 The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72年版을 사용하였음.

(3) 近代建築의 上限線은 Nikolaus Pevsner 간은 이는 1860年代의 William Morris로부터 보고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Penguin Books, 1970 참조) Henry-Russell Hitchcock 같은이는 1세기를 더 올리서 1750年代 까지 보고 있다. (Henry-Russell Hitchcock, Architectur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Penguin Books, 1969 참조)

한理解와分析을爲하여 그의建築觀에 대한 새로운解석의 시도를本論文의 과제로 삼았다.

II. 「Towards a New Architecture」에 對한概觀

「Towards a New Architecture」는 Le Corbusier가 Amédée Ozenfant, Charles Dermée와 함께 1920年創刊한 「L'Esprit Nouveau」誌에掲載하였던 글 중에서建築에關한것을 모아서 1923年 단행본으로出刊한것이다.⁽⁴⁾

Le Corbusier는長廣舌하고多辯的인 그 자신의詩情이 넘치는言辭로서 책全篇에近代建築에關한不變한革命的情熱과熱烈한呼訴를하고 있다. 즉 이것은 그의建築에對한確信과信念이며 이때부터 그의 앞으로의建築創造作業을 위한思想武裝을 끝마쳤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책은日常的이고平凡한建築言語로된 그의 이야기로보다는制限된 몇개의主題로서近代建築이志向해야할바를总進展의이고狂想의인 essay調로 쓴 Le Corbusier 자신이建築家들에게 바친近代建築에對한巨大한啓示다.

이책을 다음과 같은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Argument, The Engineer's Aesthetics and Architecture (I. Mass, II. Surface, III. Plan), Regulating lines, Eyes which do not see (I. Liners, II. Airplanes, III. Automobiles), Architecture (I. The lesson of Rome, I. The Illusion of Plans, III. Pure Creation of the Mind), Mass-Production Houses, Architecture or Revolution.

이들은크게두개의主題로나누어서 있고 각章의عن들은이主題를強調하거나鮮明하게하도록쓰여져 있다. 그主題는建築에對한Academic material과Mechanistic material로구분할수 있다.

첫째, Academic material項에속하는章들은Three Reminders to Architects, Regulating Lines, Architecture이고,

(4) 「L'Esprit Nouveau」에개재되었던것은建築의에도계속발간되었다.

Painting; 「La Peinture Moderne」Product design; 「L'Art Décoratif d'Aujourd'hui」Town-planning; 「Urbanisme」등冊名으로 L'Esprit Nouveau 編者보지 出版되었다.

(5) Vitruvius는그의「The Ten Books on Architecture」에서이와같이 정의하고 좋은건축이란하는 있는것은이셋중 어느하나라도있거나다지고代替될수없다고하였다.

그후실제 허신적인건축이라고한자라도이것들을基盤으로하여展開되었고, 남지어느것을더強調하는가時代에따라문제되었던점이다. Morris Hicky Morgan 교수는이책의英譯에서Firmitas를durability(耐久性), Commoditas를Convenience(便利性), Venustas를beautys(審美性)로翻譯하였고各各sound construction, good planning, pleasing appearance로설명하였다.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translated by Morris Hicky Morgan, Dover 참조.

둘째, Mechanistic material에속하는章들은The Engineer's Aesthetic and Architecture, Eyes which do not see, Mass-Production Houses, Architecture or Revolution 등이다.

本論에서 구체적으로言及되겠지만機械에관한그의견해들도실은機械美에對해서言及되어있고더구나Academic tradition의推象的이고古典的인思想들을더욱굳건히하기위한主機能으로서機械美를강조하고있다.

Le Corbusier의意圖는機械와古典사이에놓여있는矛盾된精神을나타내고자한것이아니라, 이사이의建築一般의特性을同一性으로보고共通된思想을機械美로서 더욱발전시켜나가기위한그자신의近代建築의direction性設定을爲한絶叫였으며동시에古典主義者임을闡明하기위함이었다.

III. 「Towards a New Architecture」를 通해서본 Le Corbusier의建築觀의分析

1. Academic themes에對한分析

이것은Le Corbusier의美學展開過程을보여준다.

Three Reminders to Architecture는Mass, Surface, Plan의3項으로되어있고이들상호관계는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Mass and surface are the elements by which architecture manifests itself. Mass and surface are determined by the plan. The plan is the generator. (p.28)

첫번째節Mass에서는有名한그의建築에關한定義가나온다.

Architecture is the masterly, correct and magnificent play of masses brought together in light. (p.31)

이것은Vitrivius의가장古典的이고正統的인建築에대한定義⁽⁶⁾즉Firmitas(堅固), Commoditas(有用), Venustas(滿足)를다른語氣로서정의하

고 있다. 즉 建築은 빛⁽⁶⁾과 그림자에 의한 彫刻의
인 効果라고 설명하고 있다.

Architecture is a play of volumes appreciated by the eyes.

그는 mass가 光線속에서 빛을 없고 正確하고 壯嚴하게 assemble⁽⁷⁾되 이부면서 演出되어지는 行動을 建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빛을 없고 正確하고 壯嚴하다는 형용사를
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보자.

正確하다는것(correct)은 建築에 對한 하나의 判斷의 기준 즉 規律의 實體를 부여하자는 것이고 빛
을 없다는것(masterly)은 이러한 規律이나 規準은
習得되어지고 理解되어어서야 한다는 것이고 壮嚴하다
는것(magnificent)은 재능과 構想力을 가지고서 그것들이 適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規律의 本性에 대해서는 보호한 상태로 설명 않고 있으나 Phileban의 語句를 다음과 같이 引用하고 있다.

...cubes, cones spheres, cylinders or pyramids are the great primary forms which light reveals to advantage;

...these are beautiful forms, the most beautiful forms. (p.31)

또한 그는 이 章의 開始에 끝을 Silo 공장들의 사
진을 實例로 보여주면서 그자신은 단순한 機能主義
建築家가 아니라 合理主義者인 科學者⁽⁸⁾임을 주장하고 있다.

Not in pursuit of an architectural idea, but simply guided by the results of calculation (derived from the principles which govern our universe) and the conception of A Living Organism, the Engineers of today make use of the primary elements and, by co-ordinat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provoke in us architectural emotions and thus make the work of man ring in unison and universal

(6) Le Corbusier는 그의 1912년 比較諸國의 여행에서 빛은 지중해의 傳統이라고 생각하였고 human scale 및 빛에 대한統御力を 認得하였다.

François Choay, Masters of World Architecture, Le Corbusier, George Braziller, 1960, p.10, p.22 참조) 또한 이것은 Boullée(1728~99)의 建築定義와 유사한 점이 많다.

'Shall I like Vitruvius, define architecture as the art of building? No, for this would be to confuse causes and effects. The effects of architecture are caused by light.'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Faber and Faber, London, 1967 p.24 참조.

(7) Charles Jencks,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A Doubleday Anchor Book, 1973 p.142 참조.

(8) Le Corbusier는 rationalism을 functionalism과 離分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近來에는 organism, rationalism, functionalism을 학내外식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나. De Zurko, Origins of Functionalist The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7, p.4 참조.

(9) Reyne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The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67 p.261, p.262 참조.

(10) 이를 反映한 代表의 그의 作品으로는 The Stein house at Garches (1927)와 The Villa Savoye at Poissy (1929)가 있다.

order. (p.33)

그는 Living Organism⁽⁹⁾과 Engineer라는 단어
를 사용하면서 自然의 法則을 따르는 合理主義者
인 동시에 科學을 바탕으로 한 建築家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다음節 Surface에서도 계속해서 강
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Bramante나
Raphael이 과거 수백년간 적용했던것을 따를것이
아니라 새로운 時代의 材料인 콘크리트 Frame으로
된 공장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近代建築의 外觀
을 찾을것을 呼訴하고 있다. 더구나 그의 건축정의
에서와 같이 mass는 建築의 本質을 이루는 主體이
므로 이 mass를 包有하는 Surface를 生動感領치게
하는것이야말로 建築家の 主任務라고 하고 있다.

A mass is enveloped in its surface, a surface which is divided up according to the directing and generating lines of the mass; and this gives the mass its individuality. (p.36)

새로운 Surface는 simplicity(單純性)로시만이 可
能하다고 했으며 이는 美的의 侧面과 技術的의 侧面
을 複合시킨 特有한 立面構成⁽¹⁰⁾을 해야한다고 하
고 있다.

이는 새로운 構造法과 施工法에 의하여 可能하며
이때까지의 建築構造를支配해온 arch에서의 脱皮
即 arch-revolutionary가 必要하다고 力說한다. (10)

人間의 偉大한 精神은 幾何學을 創造했으며 幾何
學은 秩序化하는 人間들의 深은 欲求에 對應하기
때문에 人間들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呼訴하는 藝
術作品들은 幾何學이 明確하게 느껴지는 作品이 어
야 한다고 Le Corbusier는 말한다.

The great probles of modern construction must
have a geometrical solution. (p.36)

이는 近代建築家들이 建築에 對한 學問的 理論的
根據을 Academy 學派의 Ecole des Beaux-Arts

의 建築에서 求하지 않고 繪畫⁽¹¹⁾에서 쓰 Cubism과 Purism에서 求한것과 相通하는 것이다.

그리나 다음節 Plan에서는 곡물 Silo·공장이나 Concrete frame은 超逸한 그 以上의 것을 나타낸다.

그는 Choisy의 전총역자와 Tony Garnier, August Perret를 설명하고 있다.

The whole structure rises from its base and i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a rule which is written on the ground in the plan: noble forms, variety of form, unity of the geometric principle. A profound projection of harmony:⁽¹²⁾ this is architecture. The plan is at its basis. Without plan there can be neither grandeur of aim and expression, nor rhythm, nor mass, nor coherence. Without plan we have the sensation, so insupportable to man, of shapelessness, of poverty, of disorder, of wilfulness. (p.46)

即 그는 過去의 建築平面이 하나의 樣式아래서 平面그자체의 完全性을 追求하는데 反對하고 平面은 建物全體의 形狀을 爲한 綜合性을 가져야 할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綜合性을 가진 形態를 創造하기 爲해시는 平面의 어떤 內容이 어떤 方法을 通하여 適用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具體的인 方法을 提示해주는 않고 있다. 어떤 관점에서는 그것의 創造는 사용되며 形態나 技術로 부터 나온다고 外延的으로만 論及한다. 即例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bay-widths that can be spanned, thickness of wall required to support various kinds of roof.

아마도 그에게는 平面에 對한 關心 자체가 至上이었고 그다음의 可能性에 대해서는 暗示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The plan bears within itself a primary and predetermined rhythm: Unith of law is the law of a good plan: ..., Rhythm is an equation: Equalization; compensation; modulation. ...The plan carries in itself the very essence of sensation. (p.47~49)

그는 Ecole des Beaux-Arts의 平面類型의範疇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위와 같이 平面의 重要性에 對해서 다른 方向으로 상세하게 反復해서 설명하고 있다. 即 建物을 決定하는 主要한 形態素는 平面에 依한 型狀과 構造方式이므로 平面에 對한 明確한 理解와 通用은 外觀의 形態를 크게 左右한다. 그는 새로운

材料 即 Concrete의 出現은 새로운 建築美를 要求한다는 것을 平面과 함께 이야기 하고 있다.

Reinforced concrete has brought about a revolution in the aesthetic of construction. By suppressing the roof and replacing it by terraces, reinforced concrete is leading us to a new aesthetic of the plan, hitherto unknown. (p.61)

Le Corbusier는 建築에 對한 平面의 決定의 影響力を 宣言한 後에 이의 完全性을 위하여 立面에 對한 美的秩序를 獨立된 章 Regulating lines에서 말하고 있다.

그는 立面이 形態를 決定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가지는 Scale, 比例, 均衡, 變化, 統一性 等은 立面形成의 必須條件이라는 說明만으로는 만족치 않고 歷史的인 建物들의 例를 科學的이고 幾何學的인 方法으로 分析하고 이를 均齊美로서 說得하고 있다.

But the past has left us proofs, iconographica documents, stelae, slabs, incised stones, parchments manuscripts, printed matter... (p.69)

이 章 全體의 過去 建物들의 立面分析에도 不拘하고 그의 歷史的 事實의 引用은 極端的으로 懶惰하고 感傷의이다.

디너나 引用한 圖面과 사설들의 不正確性을 Reyner Banham은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¹³⁾

Porte Saint-Denis의 사진(책 p.63)에 表示한 繪들과 Notre Dame의 façade(책 p.73)에 表示한 繪들은 Blondel의 圖解를 잘못 圖示하고 있다.

Capitol at Rome(책 p.74)과 Petit Trianon at Versailles(책 p.75)의 사진에 그어진 線들은 實際 Scale로 본때 그 線의 길이가 1 feet나 넘게 그어져 있다. 이것은 난순한 숫자의 繼列을 위한 것 외에는 아무런 意味도 賦與하지 못하는것을 그는 시도하였고 이것은 오히려 確信을 주지 못하는 弱點을 만들고 있다. 또한 The Arsenal of the Piraeus의 façade(책 p.71)의 復原圖도 原型과 같은것이라고 잘못 理解하고 있다.

Achaemenian Cupolas의 圖面(책 p.72)도 그중의 하나는 Dienlafoy를 잘못 이해하고 그런 것이다.

그리나 이와같은 그자신의 引用의 誤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幾何學의 形態로서 建築을 解

(11) Reyner Banham, 앞의 책 p.15.

(12) 建築은 均衡의 藝術이라고 한 것은 Bruno Tauto (1880~1936)에 서도 같다. 보루노 타우트, 建築이란 무엇인가, 產業圖書出版社, 1977. p.11~21 참조.

(13) Reyner Banham은 앞의 책 p.225~226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析하였고 그것으로서 design의 主題를 把握하려고 한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

그는 平面에서의 幾何學의 形狀의 適用을 넘어 外觀의 幾何學의 形狀도 人間에게 感動과 즐거움을 주는 表情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Academic themes에 關한 두번째 章 Architecture를 보자.

그는 이 章에서 Functionalism is not enough라는 것을 이야기의 主題로 삼고 있다.

첫째 節 The Lesson of Rome에서는 建築은 實用性이나 機能面을 超越한 그以上の 것. 即 精神의 인 特質들을 包容할 것을 呼訴한다.

Architecture goes beyond utilitarian needs. (p. 140)

그는 그 자신이 機能主義 建築家가 아님을 強調한다. (이에 對해서는 Eyes which to not see章에서 詳述하도록 한다.)

機能主義建築의 slogan은 Utility is beauty. Utility is all에 對해서 反對하고 자신은 機能主義와 區別해서 合理主義建築家라고 말하고 있다. ⁽¹⁴⁾

建築은 實用의 必要性을 넘어서는 것이다. 建築에 對한 情熱은 대수롭지 않은 하나의 돌조각 속에서도 生生한 삶의 소리와 움직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그는 古代 Rome인들을 讚揚하고 있다(책 p.141~p.160 참조). 그러나 그는 Michael Angelo以後 잊어진 Rome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Rome를 고발하면서 다음과 같이 論結하는다.

The Grand Prix de Rome⁽¹⁵⁾ and the Villa Medici are the cancer of French architecture. (p. 161)

다음 節 The Illusion of Plans에서는 프랑스建築의 이 毒性을 Ecole des Beaux-Arts로 돌리고 攻擊한다. ⁽¹⁶⁾

In a great public institution, the Ecole des Beaux-Arts, the principles of good planning have been studied, and then as time has gone by, dogmas have been established, and recipes and tricks. A method of teaching useful enough at the beginning has become a dangerous practice. (p. 165)

(14) Charles Jencks, 앞의 책 p.147 참조.

(15) The Grand Prix de Rome는 Ecole des Beaux-Arts의 最大의 年間行事로서 每年 1回 Rome大賞設計競技를 開시하여 大賞受賞者를 Rome에 派遣하여 建築修業을 시키 세도이다(이에 對해서는 SD誌 '78年 11月號 p.117에 詳述되었다).

(16) Le Corbusier는 반간諸國의 旅行(1906~8)을 마치고 Paris로 돌아와서 Academy 學派인 Ecole des Beaux-Arts에 들여가지 않고 August Perret의 Studio에서 建築修業을 한다. 이 事實과 Towards a New Architecture에서의 Ecole에 對한 攻擊은 後에 實際 建築界를 장악하고 있는 Ecole로 부터 심한 報復을 당하고 온갖 中傷과 追害를 받는다. 例로서 國際連盟會簡 헌장설계에서는 一等당선되었다가도 Ecole의 신사원들로 부터 최소 당한바(1926年)이다.

(17) 이 思惑을 뒷받침하는 것 建築的 提案은 그의 Dom-ino System(1914~15)이다.

그는 平面에 너무 強要되어 平面白體의 完全性을 찾는 建築보다는 建物의 全體性을 強調한다.

A plan proceeds from within to without. (p.167)

建築家는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作業이 아니라 有에서 有를 再現시키는 作業을 하는 者이며 그가 몸 담고 있는 時代의 거울에 비친 새로운 vision이 꾸준히 蕊積된 有의 內體驗에서 發芽하는 것을 찾다운 그의 作品으로 만들 수 있는 者라야 한다.

內部空間의 建築素, 建物의 配列, 外部空間과 内部空間의 相關關係, 建築에서의 禁忌 등을 說明하고 있다.

There are no other architectural elements internally: light, and its reflection in a great flood by the walls and the floor, which is really a horizontal wall. To erect well-lit walls is to establish the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interior. (p.172)

Arrangement is the grading of axes, and so it is the grading of aims, the classification of intentions. the architect therefore assigns destinations to his axes. These ends are the wall or light and space. (p.173)

The elements of the site rise up like walls planned in the power of their cubic co-efficient, stratification, material, etc., like the walls of a room. Walls in relation to light, light and shade, sadness, gaiety or serenity, etc. Our compositions must be formed of these elements. (p.179)

When we pass from mere construction to architecture it is because we are indulging a high aim. Vanity must be avoided. Vanity is the cause of architectural vanities. (p. 184)

太陽의 神秘를 讚揚하며 빛의 속사업을 들을 수 있는 内部空間, 그 빛에 反射되는 壁面, 適確히 規制되는 室들은 觀察者가 空間속에서 움직임에 따라 變化하는 視覺經驗을 갖도록 해야 한다.

Le Corbusier는 過去 建築의 屬性이었던 限定空間에 對한 새로운 空間의 追求를 하고 있고 内外部空間에 對한 새로운 解析과 이를 連結하는 媒介體로서 빛과 그림자의 導入을 위한 方法들을 그의 多樣한 視覺建築言語로서 설명하고 建築에 시현한다. ⁽¹⁷⁾

또한 그는 建築에서 軸(axis)이라고 하는 것은 空

間을 象徵化시키는 方法으로서 하나의 方向性을 나내는 것으로 보고 Greece의 Acropolis⁽¹⁸⁾ 等의例를 建物配置 白體로서의 軸보다는 주변 대지와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서의 狀況軸으로서 설명하고 이리한 罷論에서 GJeece 建築을 鼓揚한다.

세번째節 Pure Creation of the mind에서: 위 어나게 아름다운 古代 Greece 建築은 여러가지로 構成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의 近代建築에 對한 觀點을 더욱 強調하기 위해서 인용한다. 그는 Gothic 建築을 想어했다(책 p.32).

光線을 利用할 수 있는 가장 根本의形態即 六面體, 圓錐, 球面體, 圓筒 등에 Design의 理論的 基礎를 둔 Greece, Rome 建築에서 近代建築의 어떤 실마리를 풀리고 하였다. Gothic 建築은 이러한 根本의形態보다는 裝飾性에 더 치우쳤기 때문이다.

自然主義과 같이 連關된 19세기의 一連의 建築概念들에 대한 反對와 더 나아가서는 機能主義에 對한 反對 및 그 自信이 계속 관찰 연구해 온 결과로서 그는 古代 Greece 建築들을 再構成한다.

그는 Greece 建築에 對한 잘못된 異解과 해석들을 바로잡고 있다(책 p.192).

그리고 建築家에 對한 純粹한 創造 精神을 이용해 要求한다.

Profile and contour are the touchstone of the Architect. Here he reveals himself as artist or mere engineer. Profile and contour are free of all constraint. There is here no longer any question of custom, nor of tradition, nor of construction, nor of adaptation to utilitarian needs. Profile and contour are a pure creation of the mind; they call for the plastic artist. (p.186)

2. Mechanistic themes에 對한 分析

The Engineer's Aesthetic and Architecture-two things that march together and follow one from the other-the one at its full height, the other in an unhappy state of retrogression. (p.17)

그는 첫번째章 The Engineer's Aesthetic and Architecture에서 機械文明이 가지 온 技術革命으로 衰退하여 건 建築을 機械美에서 다시 찾고 이로서 近代建築의 새로운 章이 열려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리한 자신의 주장을 평가 위해서는 이때까지 브랑스 나아가서는 유럽의 建築界를 지배해온 Ecole의 過誤와 그것의 弊害를 첫章부터 反復해서 攻擊

한다(책 p.18~20 참조).

그리고 이어서 Academy學派에 對한 공격으로 그는 처음부터 既成建築家들로 부터는 敬遠당하고 오히려 깊은 건축가들에게 羨望과 魅惑의 對象이 된다.

Architecture is a thing of art, a phenomenon of the emotions, lying outside questions of construction and beyond them. The purpose of construction is to make things and hold together: of architecture to move us. (p.23)

即 그는 집에 對한 概念을 연장(outil)에 比喻하고 俗來의 남은 產物은 딛쳐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替換되어져야 한다고 力說한다(책 p.17~21 참조).

그는 技術과 建築, 技術者와 建築家の 能力과 本分을 國別화할 것을 요구한다. 即 그는 Parthenon을 例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The Engineer is effected and the sculptor comes to life.'

또한 그는 새로운 機械化된 環境의 創造는 Beaux-Arts의 樣式에서도 Polytechnique의 構造의 合理主義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다만 새로운 精神이 呼吸하는 機械의 古典을 調和시키는 美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藝術에 對해서 包括的으로 이렇게 말한다.

Art is the application of knowledge to the realization of a conception. (p.20)

機械에 關한 두번째 章 Eyes which do not see에서 그는 이를 더욱 進展시킨다.

이 章은 I. Liners II. Airplanes III. Automobiles로 나누어져 있다.

Liners節에서 그는 새로운時代에는 새로운建築이 만들어져야 할 必然性을 呼吁한다.

A great epoch has begun. There exists a new spirit. There exists a mass of work conceived in the new spirit; it is to be met with particularly in industrial production. Architecture is stifled by custom. The 'styles' are a lie. Our own epoch is determining, day by day, its own style. Our eyes, unhappily, are unable yet to discern it. (p.82)

그는 새로운 樣式을 위하여 두가지를 提案한다.

첫째는 그時代는 그時代固有의 樣式을 그時代 狀況속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그 方法으로서 Mondrian, Oud 等의 회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

(18) 이에 對해서는 Doxiadis, Architectural Space in Ancient Greece, The MIT Press, 1972, p.1~26 참조.

여, 둘째는 우리들 生活所遇의 對象(object)⁽¹⁹⁾ 即 制度, 인필, 타자기, 전화, 가구, 팬유리, 모자, 자동차, 기선, 비행기 등에서 求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는 近代建築에 對한 名句인 'A house is a machine for living in.'(책 p.89)을 豐言한다.⁽²⁰⁾

그러나 이 句節은 發表된 以來 많이 引用된 것에 비례하여 Le Corbusier에 對한 誤解도 많이 자아온다.

그리고 이에 對한 說明은 The Manual of the Dwelling(책 p.114~115)에서 要約하고 있다. 이 名句는 그는 機能主義建築家⁽²¹⁾로 부르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의 後의 著作 'Poem of the Right Angle'에서도 'Functionalism, this horrible word, born under other skies.'라고 말하고 있다.⁽²²⁾

이것은 機能主義建築의 Slogan인 "Form follows function."에 對한 잘못된 解析의 適用파도 비슷하다.⁽²³⁾

Le Corbusier는 Greece以後의 유럽精神의 典型의인 表現인 理性的 美學을 機能主義를 배우는 사람들이 빠뜨렸고 그것을 機械의 美學으로서 内現해 보자 한 것이다. 이것은 建築에서의 새로운 主題의 出現을 要求하고 既存의 變化에서만 可能한 것이다.⁽²⁴⁾ 기선, 자동차, 비행기 등의 機能的 形態가 美하기 보다는 抒情性, 力動感, 生動感 등 어떤 感動을 자아내는 것들이 機械美의 方法으로서 可能하다고 본 것이다.⁽²⁵⁾

그는 The lesson of the airplane is not primarily in the forms it has created.(책 p.102)라고 하며, 이것을 기선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見解를 나타내며, 이런 관점에서 그는 機械美를 譬揚한다.

Liners節에서

(19) Le Corbusier는 建築 type을 objects-type, situation-type, ville-type, maison-type, hostel-type, habitant-type, appartement-type 等으로 나누어 서 생가한다. Reyner Banham, 앞의 책 p.247. Le Corbusier, Le Corbusier my work, The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60 참조.

(20) 機械와 관련한 定義들은 딴 사람들은 보인다. Paul Valéry; 'A book is a machine for reading.' Ozenfant; 'A painting is a machine for moving us.' I.A. Richards; 'A book is a machine to think with.' Eisenstein; 'The theatre is a machine for acting.' Mareel Dunchamp; 'The idea is the machine for making art.' Van Doesburg; 'Ever a machine is a spiritualization of an organism.'

(21) Le Corbusier 자신은 機能主義와 구별해서 合理主義建築家라고主張한다.

(22) Françoise Choay, 앞의 책 p.17, p.29.

(23) 機能主義建築의 대名詞인 이 말은 'Utility dictates shape.'로 直說的으로 解析되기도 하는가 하면 '機能은 形態를 냉는다.' '機能의 形態일수록 아름답다.'라고도 해석되는데 이는 잘못 된 것이다.

Peter Blake는 Frank Lloyd Wright, Architecture and Space, Penguin Books, p.27에서 이에 對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

(24) 가장 保守적인 Ecole의 Prix de Rome에서도 네마를 宗教의 建物에서 새로운 태마로 조금씩 바뀌었다.

(25)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McGill University Press, 1967, p.165.

If we forget for a moment that a steamship is a machine for transport and look at it with a fresh eye, we shall feel that we are facing an important manifestation of temerity, of discipline, of harmony, of a beauty that is calm, vital and strong. A seriously-minded architect will find in a steam ship his freedom from an age-long but contemptible enslavement to the past. (p.97)

라하고

airplanes 節에서는

The lesson of the airplane is not primarily in the forms it has created, and above all we must learn to see in an airplane not a bird or a dragon-fly, but a machine for flying; the lesson of the airplane lies in the logic which governed the enunciation of the problem and which led to its successful realization. (p.102)

라하고

automobiles 節에서는

Let us display, then, the Parthenon and the motor-car so that it may be clear that it is a question of two products of selection in different field, one of which has reached its climax and the other is evolving. That ennobles the automobile. And what then? Well, then it remains to use the motor-car as a challenge to our houses and our great buildings. It is here that we come to a dead stop. 'Rien ne va plus.' Here we have no Parthenons. (p.130~131)

이라고 하고 있다.

Automobiles 節 전체를 통하여 그는 Parthenon 차기와 자동차의 차진을 비교하면서 자동차를 오늘날의 機械美의 代表로서 一種의 神格化까지 하고 있다. 또는 그는 1907年の Humber(책 p.124)에서 1921年の Delage(책 p.125)까지의 自動車의 發達사진을 비교하여 보여주므로서 形態發展의 必然性을 이야기하고 近代建築도 우리時代에 맞는 樣式을 찾아야할 必然性을 가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Parthenon의 建築美로서의 完全性과 調和美를 節전제에 걸쳐 보여주므로서 古典과 機械美의 調和에서 近代建築의 樣式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런 樣式은 大量生產可能한 것으로까지 發展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近代建築의 課題라고 그는 말한다.

A great epoch has begun. The problem of the house is a problem of the epoch. The equilibrium of society to-day depends upon it. We must create the mass-production spirit. If we eliminate from our hearts and minds all dead concepts in regard to the houses and look at the question from a critical and objective point of view, we shall arrive at the 'House-Machine', the mass-production house, healthy (and morally so too) and beautiful in the same way that the working tools and instruments which accompany our existence are beautiful. (p. 210)

Mass-Production Houses 章 전체는 그 자신과 Pierre Jeanneret가 mass-production housing에 관하여 提示한 project들로서 꽉 차 있다.

Le Corbusier는 Functionalism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建築構成方法에 의한 세 가지의 system을 提案하고 이 案에 依한 設計案을 만들고 있다. 即 Dom-ino, Monel, Citrohan 세 案이다.

Maison Dom-ino는 1914년~15년 사이에 low-cost house를 爲하여 제안한 것⁽²⁶⁾으로서 그가 완벽한 機械美를 터득한 獨逸建築家 Peter Behrens⁽²⁷⁾로 부터 얻었듯이 보다는 Tony Garnier가 1901~4년에 제안한 'Cité Industrielle'에 나온 것이다.⁽²⁸⁾

이것은 大量生產, human scale, 近代工業 및 철근 Concrete의 可能性에 대한 그 자신의豫示다. Concrete post and slab system으로서 이것은 후에 그의 近代建築의 5原則⁽²⁹⁾으로 까지 發展한다.

Maison Monel은 多樣な 材料에 依한 벽체의 대량생산과 벽체와 Frame의 分離가可能な 構造 System의 제안이다(1920年).

Maison Citrohan은 機能을 建築構造의 觀點에

서 解析하고 시도해 본 것이다.

그는 Citroën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고 주택은 자동차와 같은 것이라라는 뜻으로서 Citrohan을 사용한다.⁽³⁰⁾ Maison Citrohan의 제안으로서 그는 Academy학파들의 建築理論과는 완전히 訣別하고 새로운 近代建築의 章을 전개한다. 即 이것은 Le Corbusier 자신의 建築言語로 이야기한 이때까지 제안된 어느 案보다도 가장 완전한 새로운 建築美의 見解이다.

Maison Citrohan은 1919~20年の 1次案과 1922年の 2次案이 있다. 2次案에서는 새로운 建築形態美로서 pilotis를 제안하고 있다.⁽³¹⁾

이러한 案들의 최종안으로서 그는 現代住居方法으로서 Immenbles-villas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주거의 集合, 密度, 각世帶간의 進入方法, 建物의 높이, 連立方法 등에 관하여 전혀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책 p. 228~p. 243 圖面 참조).

技術, 機械는 이미 存在하여 있었고 建築에의 이 것들의 적용에 대한 社會的 要求는 充滿하였으며, 다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建築家들을 대신하여 Le Corbusier가 먼저 제안한 것일지도 모르나 그의 近代建築에 대한 해결책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 한다.

The right state of mind does not exist. We are dealing with an urgent problem of our epoch, nay more, with the problem of our epoch. The balance of society comes down to a question of building. We conclude with these justifiable alternatives: Architecture or Revolution.

마지막 章 Architecture or Revolution에서는 建築의 變革을 歷史的인 過程의 하나로서 설명한다.

The history of Architecture unfolds itself slowly across the centuries as a modification of structure and ornament, but in the last fifty years steel and concrete have brought new conquests, which are the index of a greater capacity for construction, and of an architecture in which the old codes have been overturned. If we challenge the past, we shall

(26) Peter Behrens 事務室 以後 一次大戰으로 고향 La-Chaux-de Fonds에 돌아와서 母校에서 4년동안 先生을 할 때 그의 建築理論을 반드시 주요한 Project를 중의 하나다(Françoise Choay, 앞의 책 d. 11 참조).

(27) Le Corbusier는 1910~11년 사이에 Peter Behrens 밑에서 일하고 여기에서 機械美學을 明確히 배웠으며, 建築家 Walter Gropius, Mie van der Rohe, Berlage 등을 만났으며, 獨逸工藝運動에 관하여 研究하였다.

(28) Henry-Russell Hitchcock, 앞의 책 p. 492.

(29) 'The supports, "The roof gardens, "The free designing of the ground-plan, "The horizontal window, "Free design of the façade. Ulrich Conrads, Programmes and manifestoes on 20th-century architecture, Lund Humphries London, 1970, p. 99~101 참조.

(30) Reynier Bangam, 앞의 책 p. 221.

(31) 자세한 것은 Henry-Russell Hitchcock, 앞의 책 p. 494~5 참조.

learn that 'styles' no longer exist for us, that a style belonging to our own period has come about; and there has been a revolution. (p. 250)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시치 못하고 단지 건설, 계획, 주거의 시설면에 있어서 새로운 것만을 소개한다.

Industry has created its tools. Business has modified its habits and customs. Construction has found new means. Architecture finds itself confronted with new laws. (p. 63)

이것은 마치 건축에서 표준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 책 마지막에 아무런 설명이나 정의도 없이 영국의 장미담배 pipe 사진만 제시하면서 끝을 맺는 것과 같다.

그 자신의 말을 빌면 'And the left is silence'이다.

IV. Towards a New Architecture에 대한 現代的評價

以上에서 Towards a New Architecture에 대한 전제적인 소개와 분석을 하였다. Sigfried Giedion은 「空間 時間 그리고 建築」에서近代建築의理論을 추진하는論理의 근기를 세가지로 나누었다.

即, 첫째는 技術의 進步에 따른變化에서, 둘째는 視覺의이고 抽象의인 造形論의變化에서, 셋째는 社會經濟의인 要因의變化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32)

近代建築의 胎動期인 1920年代의 建築에 대한 세 가지의 課題는 建築史에 대한 意味와 解析, 科學의 實體把握, 古典傳統에 대한 實體把握이었다. (33)

이러한 時代의 과제는 合理의이고 直情의인 Le Corbusier로 하여금 時代의 機械美를 Greece建築과 비교하게끔 만들었다. 그는 과거와 현대(1920年代)는 同質로서 인식해야 하고 現代建築(1920년대)은 前現代에 바탕을 둔 현대건축이어서 이야기하는 전현대의 變身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人間(home sapience)에게 맞는 案이란 것은 理性的으로 정식

이 없는 외벽면, 새로운 형태에 있으며 이는 단순성으로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는 經驗的方法에서가 아니라. (34) 純粹한 理性的思惟가 곧 그 실천에 필요되는 근원이라고 여기는 테카트의(Cartesian)인 물이다. 이것이 그를 建築案에 있어서도 단순성을 제안하게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그의 建築的思考를 Ecole의 建築에서 찾지 않고 회화에서 얻었다는 것(35)은 주목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의 단순성과 순수성은 명확히 표현된 기능의 視覺화와 더불어 近代建築의 Form Giver로서의 眞面目을 보여 준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의 美에 대한 제안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理想案을 추구한 Futurist와는 내용면에서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Futurist의 이상안은(36) 그것이 一次世界大戰으로 종식하였고 그의 建築案은 戰後의 달라진 상황하에서 나타난 것임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建築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그의 兩面性和 模糊性이다. 이것은 그의思考에서 秩序에서 樣式에서 기술의 발전에 의한 변화성과 미의 영원성에 대한 견해에서 볼 수 있다.

그는 自然의 秩序와 藝術의 規律性에 대해서 같이 말하면서 어떻게 구별할까를 얘기하지 않는다. 또한 건물은 기하학적이어야 한다면서 어떤 것에 시는 극히 생태적인 조형을 만든다. (37)

또한 건축의 어떤 관점에서 과학을 보았더 이를 건축에 적용하였는지는 것이다. 그는 어떤곳에서는 건축美를 파르테논과 마찬가지로 전화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며, 어떤곳에서는 자연의 법칙에서 나오는 수학을 구사하는 engineer에서 건축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 어떤곳에서는 engineer의 美와 建築家의 美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러한 그의 양면성을 超克하여 전히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고 제시하며 해결

(32) S. Giedion, 앞의 책, Architecture of the 1690's 참조.

(33) Reyner Banham, 앞의 책 p. 19.

(34) Le Corbusier는 경험주의에 반대하였다.

(35) S. Giedion, 앞의 책, p. 518~525.

(36) Ulrich Franzen, Programmes and Manifestos on 20th-Century architecture, Lund Humphries London, 1970, p. 34~38.

(37) 예로서 Ronchamp 교회는 'machine for praying-in'의 관점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다.

할려는 능력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³⁸⁾ 즉 그는 건축에서 論議되어져야 할 균형한 세부적인 사항들과 어떻게 건축을 接近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그의 견해의 양면성에 대한 원인을 두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는 과학을 모르는 기성세대에게서 신용을 얻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자신이 고전의 베칙을 따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과학을 사용치 않는 Academy파를 공격하고 반대자들의 이론적근거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는 근대기술(modern technolog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만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면서도 그가 近代建築家像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굴이 없는 것은 아이로니칼하다.

V. 맷 음 말

*Vers une Architecture*는 영어로 矢 역 하루 實은 Towards a New Architecture가 아니라 Towards an Architecture이다. 즉 번역서의 새로운 이라는 형용사의 개입으로 Le Corbusier의 이 책 전체에 대한 先入見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그는 古典의 관점에서 건축을 지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建築의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다. 즉 새로운 움속에서 옛 것을 再發見하는 것이다. 아무도 이 책은 어느 다른 건축책보다도 그 내용이 친숙하여졌고 독자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깊이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이때까지의 잘못된 近代建築에 對한 도전장이다.

또한 이 책은 건축가들에게 그들자신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미 建築을 해야 한가를 일깨워 준다. 그것은 Beaux-Arts의 전통이 존재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그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것을⁽³⁹⁾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20세기 建築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잃어버린 人間을 再發見하고 이것을 建築에 불어넣어 주려한 사람이다.

이것은 동시에 그의 近代建築에 바친 하나의 讀

歌며 건축가들에게는 近代建築에 대한 하나의 啓示를 베풀었다.

또한 그것은 독자를 남다르게 說得同化 시킬 수 있도록 驅使한 그자신의 建築言語와 支撐力 때문인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가 이 책에 담은 다음의 글과 같이 그에게도 똑같이 던져질 줄이기도 하다. 即, ‘미켈란젤로는 과거 1000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인간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피디아스⁽⁴⁰⁾는 그를 앞지른 1000년 동안의 단한번의 人間이었다.

미켈란젤로가 한 作業은 創造이었지 르네상스는 아니었다. 심상치 않은 정열, 지성, 이것만이 영원에 대한 指定이다.’

물론 現代에서의 建築에 대한 志向은 이 책 보다는 여러측면에서 더 包括的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¹⁾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의 建築가들의 과제이며 Le Corbusier가 남겨놓은 주제일 것이다.

주:原文은 본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번역치 않았음.

참 고 문 헌

1. Le Corbusier, 'Towards a New Architecture' trans. by Frederick Etchells,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72.
2.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Penguin Books, 1970.
3. Henry-Russell Hitchcock, 'Architectur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Penguin Books, 1969.
4.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trans. by Morris Hicky Morgan, Dover, 1960.
5. Françoise Choay, 'Masters of World Architecture, Le Corbusier' George Braziller, 1960.
6.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Faber and Faber, London, 1967.
7. Charles Jencks,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A Doubleday Anchor Book, 1973.

(38) Reyner Banham, 앞의 책, p.259.

(39) 프랑스의 많은 건축주들이 avant-garde 하고 cubist 회화와 관계되는 주제의 실내를 요구했다. Henry Russell Hitchcock, 앞의 책 p.510.

(40) 피로데는 성당 건축가.

(41) Charles Jencks, 앞의 책에서(p.12) Le Corbusier의 절규의 위험성과 미비성을 경고하고 있다.

8. De Zurko, 'Origins of Functionalist The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7.
9. Reyne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The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67.
10. Doxiadis, 'Architectural Space in Ancient Greece' The MIT Press, 1972.
11. Le Corbusier, 'Le Corbusier My Work' The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60.
12. Peter Blake, 'Frank Lloyd Wright, Architecture and Space' Penguin Books, 1965.
13. Ulrich Conrads, 'Programmes and manifestoes on 20th-century architecture' Lund Humphries London, 1970.
14. Si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1973.
15. SD^{卷上}, 1978. 11.